

# 책값이 '정가'인 까닭

지난 여름 각종 연금매장과 공제조합의 도서 할인판매에 대한 전국 서점들의 휴·폐업과, 최근 웅진출판사와 도서출판중앙회의 재고도서 할인판매를 둘러싼 공방이 채 사그라들기도 전 한 출판사의 직영서점 개설 소식을 접하게 됐다.

78년에 설립되어 「변증법이란 무엇인가」 「세계 철학사」 등 이른바 진보적 성향의 사회과학도서 출판에 주력해오다가, 최근들어 「秘錄 박정희」, 하이틴 시리즈 등 이른바 상업적인 기획에도 눈길을 돌리고 있는 스사가 그 주인공이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의하면, 스사가 개설한 직영서점을 통해 회원으로 등록한 독자에게 제공하려는 서비스는 크게 세가지이다. 우선 우편, 팩시밀리, 전화 등을 통해 책을 주문하면 집에서 받아볼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그 하나다. 두번째로는 자사가 발행한

책을 5권 이상 또는 2만원어치 이상 구입할 경우 도서대금의 20%를 할인해 준다는 것이다. 세번째로 들고 있는 것이 1년에 한차례씩 직영서점에서 취급하는 전 종목에 대해 할인판매를 한다는 것이다. (이 서점에서는 스사의 출판물 외에 다른 출판사의 책도 취급하고 있다)

바쁜 시간을 쪼개서 서점에 들러 책들을 뒤적이고 원하던 책을 골라 사는 희열을 누릴 것인가 말 것인가는 독자 개인의 성향과 사정에 따라 선택될 문제이기 때문에 이들이 계획한 첫번째 사업에 대해서는 달리 할 말이 없다. 시간에 쫓기는 독자들을 위한 서비스 제공이라는 측면에서 오히려 권장할 만한 일인지도 모른다.

문제가 되는 것은 두번째와 세번째에 포함되어 있는 할인판매 계획이다. 그러나 두번째 자사 출

판물에 대한 할인에 대해서도 여기서는 논외로 한다. 직접 출판사를 찾아주는 '고마운 독자'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책값을 할인해주는 경우는 다른 출판사에서도 왕왕 찾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결국 남는 것은 세번째 즉, 취급하는 전 종목에 대한 1년 단위의 할인판매 항목이다. 지난 여름 서점 휴·폐업이 진정될 때 거듭 확인된 '도서 정가 판매 원칙'이 출판사가 직영하는 서점이라 해서 무시해도 좋다는 예외는 인정될 수 없다는 것이 우리나라 도서 유통구조를 염려하는 사람들의 지배적인 의견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이 서점이 계획하고 있는 할인판매는 1년을 단위로 정기적으로 이루어질 모양인데, 그것은 자칫 백화점이나 옷가게 등에서 하는 '정기 바겐세일'을 연상시킴으로써 책이 지나는 혹은 지닐 수 있기를 소망하는 '문화적 가치'를 약화시키는 느낌마저 들게 한다. 모든 상품들의 가격이 '소비자 권장가'로 표기되는데 비해 책의 값이 유독 '정가'인 이유를 책을 만드는 출판사가 모를리 없다는 안타까움은 여타의 할인판매 공방을 볼 때와는 또 다른 착잡함을 느끼게 한다.

— 박남정 기자

# 출판저널

통권 제77호 / 1991년 2월 5일 발행

발행인 — 鄭鐵肅  
 편집인 — 金炳翼  
 인쇄인 — 李壹秀  
 편집부장 — 康鐵柱  
 기자 — 金芝媛 鄭素淵 崔兌源 鄭蕙玉 朴南貞

디자인 — 尹貞子  
 사진 — 鄭貞煥

업무차장 — 尹東鎬  
 업무·광고 — 李養天 崔炳天 金允淳 金攸姬

등록 1987년 6월 9일 - 다 435  
 대체구좌 010041-31-2826477  
 발행처 - (재) 한국출판금고  
 인쇄처 - 평화당인쇄주식회사  
 전산사식 - 대한컴퓨터

출판저널-110-190 서울 종로구 사간동 105-2 출판문화회관 2층  
 전화 732-1431~3  
 FAX 722-1174

「출판저널」은 신문윤리강령 및 주간신문윤리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출판저널」 편집서평위원

權寧彬	琴章泰	金光秀	金文煥
金錫滿	金聖坤	金彥鍾	金榮漢
金仁會	金鍾元	金治洙	金泰俊
金泰賢	金泰亨	朴明淳	朴星來
朴世熙	潘星完	邊衡尹	徐淵昊
宋相庸	申福龍	權鍾夏	安秉永
安輝濤	梁文吉	吳光洙	柳一相
尹志寬	李潔淑	李瑞賢	李光周
李基相	李斗暎	李萬勳	李炳勛
李相日	李勝羽	李元馥	李重漢
李姬載	林煥燮	張必和	張會翼
鄭丙圭	鄭燦鍾	鄭雲映	鄭晉錫
鄭鍾弘	曹南鉉	曹大鉉	崔鍾車
韓相慶	韓勝憲	許碩烈	洪延善
黃鉉產			(가나다 순)

## 「출판저널」 정기구독안내

매월 5일·20일자로 발행되는 격주간「출판저널」의 정기구독예도를 안내합니다.  
 \* 본사의 지료용지로 10,000원(10호분) 또는 18,000원(20호분)을 송금하시면 입금된 날짜의 해당호부터 우송해 드립니다. 정기구독 예약은 10호분 또는 20호분 단위로 신청을 받습니다.  
 \* 본사의 지료 용지가 없으신 분은 전국 각 은행(농협 수협 축협 포함)의 A지료 용지에 본사지료번호 3008669와 금액, 주소, 성명을 명기, 붙임하거나 또는 우체국 대체구좌 010041-31-2826477을 이용하십시오.

## 독자서평을 모집합니다

본지는 서평의 활성화에 보탬이 되도록, 독자들이 참여하는 「독자서평」란을 두기로 했습니다. 신간중에서 감명깊게 읽은 책, 값싸다고 생각되는 책을 서평의 형식으로 소개하는 글이 되겠습니다.  
 원고분량은 책명과 저·역자명을 포함하여 2백자 원고지 7매 내외, 투고하시는 분의 주소·성명·직업 등을 첨가하여 본사 「독자서평담당자」 앞으로 우송해 주십시오. 투고된 원고는 소정의 심사를 거쳐 본지에 게재합니다. 수록된 서평에 대해서는 게재지와 소정의 원고료를 드리겠습니다.

공급: 한국출판협동조합

서울 마포구 신수동 448-6  
 716-5616~9, 716-5621~3

# 독서퀴즈

다음 문제의 정답을 2월 15일까지 「출판저널」 독서퀴즈 담당자앞 (110~190 서울 종로구 사간동 105-2 출판문화회관)으로 보내주시시오. 보내실 때는 문제가 실린 「출판저널」 호수를 명기하시고, 우편엽서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출판저널」 제79호(3월 5일자)에 발표됩니다. 정답을 모두 맞힌 독자 중 5명을 추첨, 민중서림에서 펴낸 「民衆愛센스 國語辭典」(정가10,000원)을 상품으로 드립니다.



이번호 독서퀴즈는 종교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1. 「예수전」을 쓴 이 사람은 실증적인 종교사연구를 예수의 생애에 최초로 적용한 인물로 유명하다. 처음엔 성직을 희망했지만 신앙을 잃고 프랑스의 무신론적 합리주의의 대표

자가 되었다. 예를 「이제껏 유례 없는 인간」으로 표현하여 콜레루드 프랑스에서 쫓겨나기도 했으며 「예수전」을 발표, 커다란 반향과 논쟁을 일으켰다. 그는 누구인가?

- ① 엘리야데 ② 르낭
- ③ 베르나노스

2. 고대 인도의 대서사시이다. 판다바(5인의 왕자)와 그 사촌형제 카우라바(100인의 왕자)라는 바라다족의 두 왕자들 사이의 왕국지배를 둘러싼 투쟁이야기로서 「바가바드 기타」라는 유명한 일화가 들어 있는 이 책의 이름은 무엇일까? 영국의 연극연출가 피터 부룩이 장장 9시간에 걸쳐 연극무대에 올리기도 했다.

- ① 우파니샤드 ② 리그 베타
- ③ 마하바라타

3. 리세의 철학교사를 그만두고 공장 여공이 된 적도 있는 시몬느 베이유는 자신의 생애와 작품을 절대 탐구에 바치고 신앙의 빛과 이성 빛을 일치시키고자 노력했다. 영국에 망명중 병으로 쓰러져서도 고통받는 이들과 함께 하기 위해 식사를 거부하다가 죽음을 맞이한 시몬느 베이유의 글모음은 어느 것인가?

- ① 중력과 은총 ② 전략
- ③ 천국의 문

4. 마르크스·엥겔스에게 영향을 준 독일의 철학자이다. 그는 인간은 자신의 본질을 투영한 것을 종교적 환상에 의해 신 안에서 보고 그것을 사랑한다는 생각에 빠진다고 보았다. 철학적 무신론의 고전적 저작인 「기독교의 본질」을 남긴 이 철학자의 이름은?

- ① 피히테 ② 포이에르 바하
- ③ 헤겔

5. 원어로는 '낭송'이라는 뜻을 지닌 이 책은 아라비아어로 적힌 이슬람교의 성전이다. 이슬람교도는 대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예언자 마호멧에게 전해진 신 '알라의 말' 그 자체로 받아들인다. 114개로 이뤄진 각 장에는 신자의 일상적 몸가짐과 예배규정이 서술돼 있으며, 아라비아의 만화가 들어 있어 문학적 가치도 높은 이 책의 이름은 무엇인가?

## 제75호 독서퀴즈 정답

「독서퀴즈」에 응답해주신 독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75호(1월 5

일자) 「독서퀴즈」에 응답해온 엽서는 모두 54통, 이중 정답자는 34통이었습니다.

당첨자 중 서울에 계신 분은 도장과 주민등록증을 지참하고 발표일자로부터 한달 이내에 「출판저널」 편집실로 오셔서 상품을 받아가십시오. 지방에 계신 분께는 우송해드립니다.

문제1 - ③ 길흉을 판단하는 점복술

문제2 - ④ 점토판

문제3 - ① 結繩(Quipu)

## 당첨자

이승숙(서울시 관악구 봉천6동 148-9 장미원APT 다동 559호)

최쌍례(대구시 남구 이천2동 303-6 7동5반)

신영순(충북 청주시 사창동 292-6 양상현방)

김주원(서울시 성동구 성수2가 4동 57-138 12/8)

김현달(서울시 관악구 신림4동 14 65-31)